

「잭과 콩나무」

〈잭과 콩나무〉는 영국의 설화로, 바이킹과 함께 영국에 들어온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가난한 집에서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잭이 시장에 나가 늙은 소를 파는 것으로 시작된다. 정채 모를 사내가 잭에게 다가와 요술 콩 몇 알에 소를 팔겠느냐고 하자 잭은 귀가 솔깃해 저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잭이 콩 몇 알을 들고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화가 나서 그 콩들을 마당에 던져 버리고 만다.

다음날 아침, 그 콩알들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 하늘 끝에 닿아 있다. 호기심 많은 잭은 그 콩나무를 타고 끝까지 올라가 보는데...

〈잭과 콩나무〉는 오늘날에도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동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골딜락스와 곰 세 마리」

〈골딜락스와 곰 세 마리〉 또한 영국의 전래 동화이다. 구전되어오던 이야기를 영국의 작가이자 시인인 로버트 서디가 책으로 편찬해 내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호기심 많은 골딜락스라는 소녀가 숲속에 있는 한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숲 속에서 먼 길을 걸었던 골딜락스가 배가 고프고 피곤해져서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그 집 식탁에 있는 죽을 먹고, 침대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원작은 골딜락스라는 귀여운 소녀가 아니라 할머니가 등장하고, 곰 가족이 아니라 숫 곰 세 마리가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어린이들을 위해 순화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동화가 되었다.

「붉은 암탉」

〈붉은 암탉〉은 러시아의 설화로, 1940년대에 미국에서 책으로 출간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한 농장에 사는 부지런한 암탉이 먹을 것을 찾아 땅을 헤치다 밀알을 발견한다. 암탉은 이 밀알들을 심고 가꾸어, 가을에 추수를 해서 밀가루로 빵아 빵을 만든다. 그 과정에서 게으른 세 친구들은 암탉이 하는 일을 어리석게만 보는데…

이 이야기는 세계 어린이들에게 널리 읽히지며 노동의 미덕을 일깨우고 있다.

책과 콩나무

[제1장] 콩나무 위로

p. 12-13 옛날 옛적에 한 작은 늙은 여인이 작은 집에 살았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잭이었다. 그들은 매우 가난했다. 그들은 한 마리의 늙은 젖소밖에 가진 것이 없었다. 잭과 늙은 여인은 그 젖소에게서 우유를 그다지 많이 얻을 수 없었다. “잭,” 여인이 말했다. “네가 시장에 갔다 오렴. 난 네가 우리 젖소를 팔았으면 해. 그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어. 그 젖소로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보렴.” 잭은 그 늙은 젖소를 시장에 데리고 갔다.

p. 14-15 그는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있었다. 아무도 그 늙은 젖소를 사려고 하지 않았다. “자, 젖소야.” 잭이 말했다. “집에 가자.” “잠깐.” 한 낫선 남자가 말했다. “네 젖소를 사고 싶구나. 난 돈이 없어. 하지만 너에게 마법의 콩을 조금 줄 수 있단다.” 잭은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마법의 콩은 매우 흥미롭게 들렸다. “좋아요.” 그가 말했다. “여기 젖소 받으세요.” 잭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어머니는 매우 화가 났다. “마보 같은 녀석!” 그녀가 말했다. “어떻게 낫 젖소 한 마리를 콩을 받고 팔 수 있니?”

p. 16-17 잭의 어머니는 그 콩들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 그것들은 정원에 떨어졌다. 잭은 조금 화가 났다. 그는 그 마법의 콩들이 특별하다고 믿었다. 그는 잡자리에 들었다. 아침에 잭은 놀랐다. 그는 밖에 있는 한 그루의 거대한 콩나무를 보았던 것이다. 잭은 콩나무의 꼭대기를 볼 수 없었다. “와!” 그가 말했다. “콩나무가 얼마나 큰지 궁금한 걸.” 잭은 콩나무를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 꼭대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오르고 또 올랐다.

p. 18-19 곧, 그는 구름들 위에 있었다. 그는 그 중 한 구름 위에 있는 한 채의 아름다운 성을 보았다. “정말 멋진 성이구나.” 그가 말했다. “내가 가서 한번 봐야지.” 그는 구름 꼭대기를 따라 걸었다. 그는 그 성에 도착했다. 커다란 나무 문이 하나 있었다. 잭은 문을 두드렸다. “여보세요.” 잭이 말했다. “집에 누구 계시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잭은 그 거대한 문을 잡아당겨 열었다. “여보세요?” 그는 다시 외쳤다. 갑자기, 잭은 매우 큰 소리를 들었다.

p. 20-21 그것은 여자 거인의 소리였다. 그 여자 거인은 잭을 향해 걸어왔다. “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녀가 물었다. “죄송해요.” 잭이 말했다. “제가 노크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요. 저는 하루 종일 걷고 올라왔어요. 전 정말 배가 고프고 피곤해요. 먹을 것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여자 거인은 잭을 보았다. 그는 매우 피곤하고 배가 고파 보였다. 그녀는 그를 가엾게 여겼다.

p. 22-23 그녀는 잭에게 엄청나게 큰 빵 한 조각을 주었다. “여기 있어.” 그녀가 말했다. “이걸 먹어. 이 쥐구멍에서 쉬렴. 하지만 조심해. 내 남편이 아침에 집에 올 거야. 그는 어린 소년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어린 소년들을 먹기 좋아하지. 그가 집에 오면 넌 도망가야 해.” “고맙습니다, 거인 아주머니.” 잭이 말했다. 잭은 그 빵을 먹었다. 그는 쥐구멍에서 잠이 들었다.

[제 2 장] 구름 속에서

p. 26-27 잭은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그는 아주 무서웠다. 그는 매우 시끄러운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 거인입에 틀림없어.” 잭이 생각했다. “그는 정말 큰 게 분명해.” “어린 소년의 냄새가 나는 걸.” 그 거인이 외쳤다. “그 냄새가 나를 매우 배고프게 만드는군.” 그 거인은 집 주위를 걸어 다녔다. 그는 그 작은 소년을 찾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소파 하나를 집어 올렸다. “흠. 여기에는 없군.” 그가 말했다. 그는 서랍장을 들어서 그 아래를 보았다. “여기에도 없어.”

p. 28-29 잭은 쥐구멍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커다란 금 한 자루를 보았다. 그것은 거인의 금이었다. 그는 또한 현관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거인이 문 닫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잭은 금이 있는 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그는 금으로 자신의 주머니들을 채웠다. 그는 그것을 다 가져갈 수 없었다. 잭은 매우 겁이 났다. “저 거인이 나를 발견하면 나를 잡아먹을 거야.” 그가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사실 그의 금을 가져가서는 안 돼. 하지만 어머니가 잡수실 게 없어. 나는 이 금으로 많은 음식을 살 수 있어.”

p. 30-31 그는 그의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금 조각들을 넣었다. 하지만 그는 실수로 한 개를 떨어뜨렸다. 쟁그랑! 그 금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었다. “뭐야?” 거인이 소리쳤다. “어린 소년이군. 그리고 그애가 내 금을 훔치고 있어. 여기로 돌아와.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잭은 현관으로 도망쳤다. 거인은 그를 뒤쫓았다. 잭은 작고 빨랐다. 그는 구름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 숨었다. 거인은 잭이 보이지 않았다.

p. 32-33 곧 거인은 잭을 찾는 것에 싫증이 났다. “아아아.” 그가 고함쳤다. 거인은 매우 화가 났다. 하지만 그는 잭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의 성으로 돌아갔다. 잭은 머리에 난 땀을 닦았다. “휴!” 그가 말했다. “아슬아슬했어. 집에 가는 게 좋겠다.” 그는 콩나물을 타고 다시 내려왔다. 그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p. 34-35 “잭.” 그녀가 말했다. “어디에 있었니? 하루 종일 널 찾으러 다녔잖니!”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는 주머니를 비웠다. 잭의 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그녀가 말했다. “금이 아주 많구나! 이걸 어디에서 구했니?” 잭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절대로 훔치면 안 돼, 잭.”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그 거인은 정말 못된 것 같구나. 어린 소년을 먹다니. 사실, 난 네가 그의 금을 가져와서 기쁘단다.” 잭은 시장에 갔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많은 음식을 샀다.

[제 3 장] 콩나무 아래로

p. 38-39 잭과 어머니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들은 여러 달 동안 잘 먹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자, 금이 더 이상 없었다. 그는 음식을 살 돈이 더 이상 없었다. 그는 콩나무를 보았다. “흠.” 그가 생각했다. “그 크고 늙은 거인이 더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해.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 그 거인이 나를 다시 잡아먹으려 할 거야.” 잭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잭은 잠시 동안 생각했다. 그는 가엾은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정말로 배가 고프었다.

p. 40-41 다시 한 번, 잭은 콩나무에 올랐다. 그는 더 멀리 멀리 위로 올랐다. 그는 구름 꼭대기에 닿았다. 잭은 성으로 다시 걸어갔다. 그는 담에 올라서 안을 보았다. 거인은 안 보였다. 여자 거인 또 한 보이지 않았다. 그는 창문을 넘었다. 잭은 집 주위를 걸어 다녔다. 하지만 금을 전혀 찾지 못했다. “난 정말 지쳤어.” 그는 생각했다. “다시 그 쥐구멍에서 낮잠을 자야 할까 봐.” 잭은 쥐구멍으로 갔다. 그는 빠르게 잠이 들었다.

p. 42-43 아침에, 그는 귀에 익은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시끄러운 발자국 소리였다. 거인은 이상하게 생긴 암탉을 들고 있었다. 거인은 잭이 있는 근처 바닥에 암탉을 두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공기 냄새를 맡았다. “무엇인가가 나를 배고프게 하는군.” 그가 말했다. “저녁식사가 어디 있지?” 거인이 가버렸다. 잭은 암탉을 자세히 보았다. 그것은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때, 암탉 아래 무언가 빛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황금알이었다.

p. 44-45 “저것은 매우 특별한 암탉이구나.” 잭이 생각했다. 그는 부엌에 있는 거인을 보았다. 거인은 술에 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의 머리 전체가 술 안에 있었다. 잭은 암탉을 움켜잡고 문을 향해 뛰었다. “잭!” 암탉이 울었다. 거인은 술을 떨어뜨리고 일어났다. “이럴 줄 알았어. 그 어린 녀석이 다시 돌아왔어. 이번에는 내가 널 잡을 거야. 널 먹을 거야.” 잭은 구름들 속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뭉게구름 안에 숨었다. 잭은 암탉의 부리를 손으로 막았다. 그렇게 하니 암탉은 짹짹 울 수 없었다.

p. 46-47 거인은 잭을 사방으로 찾았다. 그는 잭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매우 화가 났다. “이번에는 너를 찾고 말겠다.” 그가 외쳤다. 잭은 구름들 사이로 재빠르게 걸었다. 곧, 잭은 콩나무 가까이에 왔다. 거인은 멀리 있었다. 그는 암탉의 부리를 놓아 주었다. 그는 콩나무를 잡아야 했다. “잭잭.” 암탉이 울었다. “아하, 거기 있구나. 준비해라, 꼬마야. 이제 너를 잡아먹겠다.” 잭은 재빠르게 콩나무를 타고 내려왔다. 하지만 거인은 컷다. 그는 느리게 내려왔다.

p. 48-49 잭은 땅에 닿았다. 거인은 아직도 콩나무 멀리 위에 있었다. “빨리요, 나에게 도끼를 주세요, 엄마!” 잭이 외쳤다. 엄마는 그에게 도끼를 가져다 주었다. 잭은 콩나무를 베었다. “아, 안 돼!” 거인이 외쳤다. 거인과 콩나무가 쓰러졌다. 거인은 매우 멀리 떨어졌다. 그것이 잭이 거인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다. 그 후에 암탉은 매일 아침마다 황금알을 한 개씩 낳았다. 잭과 엄마는 행복하게 살았다.

골딜락스와 곰 세 마리

p. 56-57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숲 속에서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다. 골딜락스는 아름다운 소녀였다. 그녀는 긴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 아빠와 집에 사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하지만 그녀는 궁금했다. 그녀는 세상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집을 나섰다. 그녀는 큰 숲속을 걷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그녀는 피곤해졌고 배가 고파졌다. 그녀는 휴식을 취하고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 그녀는 집 한 채를 발견했다.

p. 58-59 골딜락스는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보세요? 여기 누구 계신가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 탁자를 보았다. 죽 세 그릇이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그릇에 있는 죽을 맛보았다. “아야!” 그녀는 말했다. “이건 너무 뜨거워.” 그녀는 두 번째 그릇에 있는 죽을 맛보았다. “흠.” 그녀가 말했다. “이건 너무 차가워.” 그녀는 세 번째 그릇에 있는 죽을 맛보았다. “남남!” 그녀가 말했다. “이건 딱 좋다.” 골딜락스는 죽을 다 먹었다.

p. 60-61 “그거 참 맛있었네.” 그녀가 말했다. “이제 앉아야겠어.” 집에 세 개의 의자가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의자에 앉았다. “이 의자는 너무 커.”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두 번째 의자에 앉았다. “이 의자는 조금 크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세 번째 의자에 앉았다. “이 의자는 딱 알맞아.” 골딜락스는 의자에 잠시 동안 앉았다. 갑자기, 의자가 부서졌다. 골딜락스는 땅에 부딪혔다. 그녀는 엉덩이를 문질렀다.

p. 62-65 “즐거운 우리 집.” 엄마 곰이 말했다. “이제 죽을 먹을 수 있겠다. 이제는 틀림없이 식었을 거야.” 그들은 부엌 식탁을 보았다. “누군가 내 죽을 먹고 있었어.” 아빠 곰이 말했다. “누군가 내 죽도 먹고 있었어.” 엄마 곰이 말했다. “누군가 내 죽도 먹고 있었어요.” 아기 곰이 말했다. “그리고 전부 다 없어졌어요.” “누군가 내 의자에 앉아있었어.” 아빠 곰이 말했다. “누군가 내 의자에도 앉아 있었어.” 엄마 곰이 말했다. “누군가 내 의자에도 앉아 있었어요.” 아기 곰이 말했다. “그리고 내 의자가 부서졌어요.”

p. 66-67 “누군가 내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 아빠 곰이 말했다. “누군가 내 침대에서도 자고 있었어.” 엄마 곰이 말했다. “누군가 내 침대에서도 자고 있었어요.” 아기 곰이 말했다. “그리고 거기에 아직도 있어요!” 세 마리 곰은 머리를 긁었다. 그들은 당황스러웠다. 골딜락스가 잠에서 깨었다. 그녀는 세 마리의 곰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아아!”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그 집에서 뛰쳐나갔다. 그녀는 집으로 계속 뛰어갔다. 그녀는 교훈을 얻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초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붉은 암탉

p. 72-73 옛날 옛적에, 작은 붉은 암탉 한 마리가 농장에 살았다. 그것은 아름다운 농장이었다. 암탉은 매우 행복했다. 하지만 음식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암탉은 땅을 긁었다. 암탉은 먹을 곤충이나 벌레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찾지 못했다. 대신에 암탉은 밀 몇 알을 찾았다. 암탉은 밀 알을 모두 집어 들었다. 암탉은 그것들을 한 무더기로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p. 74-75 어느 날 아침, 암탉은 친한 친구 키티 캣에게 다가갔다. “키티 캣, 오늘 나 좀 도와줘. 밀을 좀 심어야 하거든.” “아웅,” 키티 캣이 말했다. “난 오늘 바빠. 내 털을 깨끗이 해야 하거든.” 암탉은 친한 친구인 레이저 랫에게 갔다. “레이저 랫, 오늘 나 좀 도와줘.” “찌찍,” 레이저 랫이 말했다. “하고 싶지 않은 걸.” 암탉은 친한 친구 슬리피 덕에게 갔다. “슬리피 덕, 오늘 나 좀 도와줘.” “꽤,” 슬리피 덕이 말했다. “난 너무 졸려. 낮잠 자야 해.” “좋아!” 작은 붉은 암탉이 말했다. “나 혼자 해보겠어.”

p. 76-77 암탉은 들판으로 낱알들을 가지고 갔다. 암탉은 부리로 많은 작은 구멍들을 뚫었다. 키티 캣, 레이저 랫 그리고 슬리피 덕은 모두 그 작은 붉은 암탉을 보았다. “하하,” 그들이 웃었다. “어리석은 암탉 같으니라고. 왜 저런 걸 하지? 재는 쉬어야 돼. 쉬는 게 일하는 것보다 나아.” 여름 동안 밀이 자랐다. 작은 붉은 암탉은 잡초를 긁었다. 암탉은 매일 밀에 물을 주었다. 가을에 밀은 키가 커졌다. 그것은 아름다운 황금색이었다.

p. 78-79 작은 붉은 암탉은 세 마리의 친구에게 갔다. “내가 밀을 베는 걸 누가 도와줄래?” “난 오늘 바빠,” 키티 캣이 말했다. “난 하고 싶지 않은 걸,” 레이저 랫이 말했다. “나는 너무 졸려,” 슬리피 덕이 말했다. “좋아,” 작은 붉은 암탉이 말했다. “나 혼자 할 거야.” 작은 붉은 암탉이 밀을 베었다. 암탉은 한 무더기의 밀을 갖게 되었다. “내가 방앗간에 밀을 가져가는 걸 누가 도와줄래?” “난 오늘 바빠,” 키티 캣이 말했다. “난 하고 싶지 않아,” 레이저 랫이 말했다. “나는 너무 졸려,” 슬리피 덕이 말했다. “좋아,” 작은 붉은 암탉이 말했다. “나 혼자 할 거야.” 암탉은 맷돌로 밀을 가져갔다.

p. 80-81 암탉은 큰 돌 밑에 밀 조각들을 놓았다. 암탉은 부리로 돌을 움직였다. 천천히 밀은 밀가루가 되었다. 다음에 암탉은 빵을 구워야 했다. 암탉은 친구들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암탉은 무슨 대답이 나올지 알았다. 암탉은 세 친구들을 보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태양 아래 누워 잠만 잤다. “히,” 작은 붉은 암탉이 말했다. “나는 그들처럼 게으르지 않아서 정말 기뻐.”

p. 82-83 작은 붉은 암탉은 밀가루를 가져가서 빵으로 구웠다. 암탉은 여러 개의 빵 덩어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들은 신선하고 맛있었다. “내가 빵 먹는 것을 누가 도와줄래?” 암탉은 자신의 세 마리 친구에게 물었다. “나,” 고양이가 말했다. “나,” 쥐가 말했다. “나,” 오리가 말했다. “아니, 너희들은 먹지 못할 거야,” 작은 붉은 암탉이 말했다. “내가 일을 다 했어. 나는 혼자서 빵을 다 먹을 거야.” 그리고 암탉은 그렇게 했다. 작은 붉은 암탉은 혼자서 빵을 다 먹었다.